

독일, 건축비 절감 액션플랜으로 디지털 건설과 조립식 건설 확대 추진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 연방건설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독일 정부는 건축비 절감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디지털 전환과 규제 개선을 통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 주택 건설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추진

- 독일 정부는 건축비 상승과 신규 주택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비 절감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
 - 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이 심화돼 건축비 절감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
 - 연방건설부(BMWBS)와 연방재무부는 민간·공공 투자 확대와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
- 액션플랜은 건축 과정의 디지털화와 건축 규제 개선, 투자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13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건축비 절감과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
 - 건축비 절감과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건설관리와 건축 기준 합리화, 투자·지원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
 - 신축 지원 제도 통합은 2027년부터, 건축허가 디지털 의무화는 2028년부터 시행하는 등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

□ 디지털 인허가와 조립식·모듈러 건설 확대를 통해 건설 기간 단축과 건축비 절감을 추진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지원

- 건축 인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 추진 효율을 향상
 - 건축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8년부터 종이 신청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온라인 기반 인허가 체계를 구축
 -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적용해 도시·건축 계획 절차를 단축하고 계획 수립과 인허가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
- 조립식·모듈러 건설 확대와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건설 생산성과 시공 효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와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추진
 - 조립식·모듈러 건설에 공사기간 단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'건물유형 E' 제도를 통해 건축 기준을 완화해 건축비 절감을 지원
 - 2027년부터 신축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'독일 펀드' 내 주택 건설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 투자 유치와 금융·세제 지원을 확대

※ 출처 : 독일 연방건설부(2026.06.19), Investorenkonferenz: Gemeinsam in neuen Wohnraum investieren